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

Consumers' Pro-Environmental Attitude and Behavior*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강사 민현선
교수 이기춘

Dept. of Consum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Min, Hyun Sun

Prof. : Rhee, Kee Ch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고찰 | V. 논의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identify sub-areas of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 (2) to examine the level of the pro-environmental attitude and behavior, (3) to examine the degree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and (4) to investigate the reasons of the inconsistenc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questionnaires with 299 married men and 378 married women and the deep interviews with 10 married women.

The major findings are follows :

(1)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 can be classified into 2 sub-areas : social-oriented area and individual-oriented area. (2) The level of pro-environmental attitude and behavior in the social-oriented area is lower than those in individual-oriented area. (3) The attitude-behavior inconsistency in the social-oriented sub-area is stronger than that in the individual-oriented sub-area. (4) The reasons of the pro-environmental attitude-behavior inconsistency are the lack of the sincer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the existence of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 restriction factors.

I. 서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만큼 절박한 상황에까지 다
다랐다고 평가되고 있는 환경위기에 대해, 환경주의

(environmentalism)와 생태주의(ecologism)라는 두가
지 상이한 입장에서의 대응방식이 논의된다. 환경주
의적 입장은 현재의 생산방식 및 소비지상주의 가
치관에 대한 근본적 변화없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환경기술 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반면, 생태주의적 입장은 단지 기술적 변화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인간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양창삼, 1994). 물론 기술적 노력으로 상당 부분 나아질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소비생활양식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1993년 국제소비자연합기구(IOCUC)가 새로운 소비자행동의 이념으로서 탄생시킨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의 개념이 바로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및 환경시스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개발이 '지속가능한 개발'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의 변화 역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장 최근의 환경논의는 새로운 소비문화로서 환경친화적 소비행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소비양식의 문제로 접근해 가고 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화하면서, 환경오염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직접적 피해자인 소비자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환경오염 문제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의식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개인의 편리함이나 복지와 사회전체의 이익간에 생겨나는 '사회적 딜레마'의 문제(Guagnano et al., 1995)로 인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환경문제가 가지는 공공재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실제 행동간의 차이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문제의 공공재적 특성은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행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특징이다. 환경문제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서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현실적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실제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최근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태도와 행동간의 괴리가 생기는 이유를 규명하려는 연구와,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촉진요인, 혹은 환경친화적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에 관심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행동과 태도간의 불일치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소비에 있어서 실제 행동과 태도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해 기존의 구매-사용-처분이라는 틀로의 구분이 아닌, 소비자가 행동의 비용이나 이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의 성격과 이와 관련된 연구경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행태에 관해 실증연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친화적 소비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환경친화적 소비의 개념 및 성격

1) 환경친화적 소비의 개념

환경문제를 소비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행해지면서, 1970년대 초반 환경친화적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나

반응을 살펴본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 연구에서는 '환경의식적 소비자(environmentally conscious consumer: Krause, 1993)', '생태적 관심을 가진 소비자(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 Henion, 1972; Schwepker & Cornwell, 1991)', '사회의식적 소비자(socially conscious consumer: Anderson & Cunningham, 1972)',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소비자(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Antil, 1984)', '환경친화적 소비자(pro-environmental consumer: Karp, 1996)'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환경친화적 소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소비자의 행동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소비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소비자가 자신의 사적인 욕구나 시장 효율성뿐 아니라 자신의 소비의 결과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하는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박운아, 1997). 구매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소비행동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적인 소비가 타인,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사용, 처분하는 것을 환경친화적 소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김영희, 1995; 민현선·이기춘, 1996; 박운아·이기춘, 1995).

또한 환경친화적 소비는 개인적 욕구 충족 이외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소비행동으로부터 그러한 행동이 구매자들의 환경과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속선상에서 표현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박운아, 1997). 이것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은 기본적으로 다른 행동과는 달리 자기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 사회전체의 복지에 기여하는 특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정 행동들은 다소 자기이익적일 수 있다고 보는 카프(Karp, 1996)의 시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2) 환경친화적 소비의 성격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는 개인의 편리함이나 복

지와 사회 전체의 이익간에 생겨나는 '사회적 딜레마'의 문제가 존재한다(Guagnano et al., 1995). 즉, 개인들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누리 고자 하지만 환경의 보존에는 큰 비용을 들이고자 하지 않는다.

환경문제가 이런 사회적 딜레마로서 이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환경이라는 것이 일반 시장제와는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시장기구의 자율적인 조절능력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산이나 소비의 동기가 부여되는데 비해, 환경문제의 경우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향으로서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되는 반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서는 아무도 자발적인 동기를 갖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이정전, 1994; Usitalo, 1987).

개인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자기의 비용계산에 넣지 않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오염으로 야기되는 비용은 분명히 존재한다(최병선, 1993). 이처럼 자신이 소비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으키는 공해는 자신의 비용에 산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비활동의 사적 비용이 그런 소비활동의 사회적 비용과 괴리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재의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가져오는 이익 중 상당부분은 공공이익으로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적 이익만을 이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비활동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과 괴리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다른 누군가가 먼저 오염 제거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면 그 결과 얻어지게 될 깨끗한 환경은 어부지리적으로 자신도 향유할 수 있으므로 굳이 먼저 나서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최병선, 1993). 즉,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적 행위는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김병완, 1994).

2.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및 소비태도의 구성

1)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구성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행동의 범주를 크게 구매, 사용, 폐기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향이다(김영희, 1995; 민현선·이기춘, 1996; 박운아, 1997; 박운아·이기춘, 1995; 안향아, 1994). 이 외에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행동만을 연구한 이시재 등(1996)은 발생단계에서의 감량행동과 배출단계에서의 감량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연구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외국 연구들에서는 연구마다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Pelletier 등(1996)은 환경친화적 행동의 범주를 재활용(recycling), 보존(conserving), 구매(purchasing)라고 하는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고, 환경단체에의 참가나 기부금 등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옹호주의(activism)라는 또 다른 범주로 구분하였다. 또한 Corral-Verdugo(1996)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비자행동을 의식적 소비(conscious consuming),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이라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재활용(recycling)' 행동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연구들도 있는데(Hopper & Nielsen, 1991; Vining & Ebreo, 1990), 이런 연구들에서는 주로 특정 재활용품의 재활용 여부나 빈도 등을 측정하였다. Maloney와 Braucht(1975)는 환경제품의 구매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소비자 행동'과 단체에의 참여나 의회관련 행동 등 공공행동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Karp(1996)는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기본적으로 다른 행동과는 달리 자기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 사회전체의 복지에 기여하는 특성이 크지만, 그 중에서 특정 행동들은 다소 자기이익적일 수 있으므로, 자아초월적(self-transcendence)인 행동과 자아중심적(self-enhancement)인 행동으로 구분 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행동유형을 구분하였

다. 이것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는 개인적인 욕구 충족에 주 관심을 두는 행동에서부터 환경이나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 관심을 두는 행동까지, 자기이익에 대한 추구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의 구성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거론되어 온 환경에 대한 소비자태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념과 평가를 나타내는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개념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 환경에 대한 태도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태도', '환경의식',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보전태도',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식' 등의 용어로 표현되어 왔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태도와 행동의 일치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태도가 특정 행동과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될 경우 더 많은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생겨났다(전병재, 1993; Fazio & Zanna, 1978; Roberts & Wortzel, 1979; Van Liere & Dunlap, 1980). 특히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소비자행동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져서, 환경과 관련된 소비자행동을 환경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파악하려는 연구에서 이와 같은 측정상의 문제가 자주 부각되었다.

환경에 대한 소비자태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환경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와 특정 환경친화적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로 구분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Lytle & Chamberlain, 1985). 환경에 대한 태도나 의식을 독립적으로 파악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연결지어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라고 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이 지적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의 측정을 시도한 연구들이 나왔다(Maloney & Ward, 1973; Maloney & Braucht, 1975; Lytle & Chamberlain, 1985).

3.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소비자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므로, 소비자학의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태도와 행동이 별개로 다루어져서는 안되고 동일한 상황적 맥락에서 함께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에서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가 파악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환경문제가 가지는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태도와 행동간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1980년대 이후의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재활용행동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실제 행동을 관찰한 Hopper와 Nielsen(199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활용에 대한 지지와 실제 행동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재활용이라고 하는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데는 소극적인 특징을 갖는 이타적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McCarty와 Shrum(1994)의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실제 참여율은 태도만큼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Scott와 Willits(1994) 역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행동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함을 역설하면서, 환경에 대한 태도-행동간의 관계가 소비자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환경에 대한 태도가 환경친화적 행동의 선행요인이기는 하지만 그 관계의 강도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를 통해 태도-행동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Dunlap & Van Liere, 1978; Heberlein & Black, 1976; Maloney & Ward, 1973; Ostman & Parker, 1987; Scott & Willits, 1994)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경향을 보면,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태도적 반응이 반드시 행동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만큼 강력한 인과적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환경에 대한 태도는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적 변수보다 훨씬 설명력이 큰 변수임이 밝혀진 연구들(민현선·이기춘, 1996; 서정희, 1986; Baldassare & Katz, 1992; Kassarian, 1971; Schwepkar & Cornwell, 1991)도 있다. 그 밖에 태도와 행동간의 일치성 점수를 계산함으로써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파악한 몇몇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현금희, 1990; Lytle & Chambelain, 1985)

환경에 대한 태도와 환경친화적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어느 정도의 관계가 나타나는가에 맞추어졌던 초점이 좀더 확대되어 둘간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이런 경향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를 밝히고 그 차이를 파악하려는 연구들(현금희, 1990; Dunlap, 1991; Hallin, 1995; Hopper & Nielsen, 1991; Samdahl & Robertson, 1989; Scott & Willits, 1994; Taylor & Todd, 1995)이 등장하였다.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의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을 찾는다고 보다는,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제약요인을 밝힘으로써 이 제약요인으로 인해 태도만큼 적극적인 행동이 행해지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는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신념이나 태도, 행동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통합된 이론적 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에(Hopper & Nielsen, 1991) 체계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은 어떠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차원은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및 소

비행동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 행동간의 불일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소비 행동 불일치의 원인은 무엇인가?

2. 변수의 정의 및 조사도구의 구성

1)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이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비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환경보존을 위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소비행동'으로,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로 인한 결과가 소비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득으로 느껴지면서 동시에 환경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이득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환경에는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두 범주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척도는 환경보존을 위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구매·사용·처분시의 제 행동을 소비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척도의 개별 문항은 김영희(1995), 민현선·이기춘(1996), 박운아(1997), 황인창(1990), Karp(1996), Lytle과 Chamberlain(1985), Scott와 Willits(1994)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자주 그렇게 한다', '가끔씩 그렇게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없다'로 범주화하였다. 이 중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분석자료에서 제외시켰으며, 나머지 범주에 대해 각각 4점에서 1점까지 부여한 4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73이다.

2)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본 논문에서는 실제 행동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소비태도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온 환경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아닌 구체적인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각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소비태도란 '특정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으로, 특히 본 연구에서의 환경친화적 소비태도란 구체적인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나 중요성 인식을 반영하는 신념으로서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한다.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척도는 특정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해 자신의 실제 수행정도와는 상관없이 그 행동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척도의 구체적인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척도에 포함시킨 행동 문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Lytle과 Chamberlain(1985)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각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변화시켰다.

이 척도의 응답범주는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의 5개로 구분하였으며, 점수화할 때는 '잘 모르겠다'와 '그렇지 않다'에 1점, 나머지에 각각 2점, 3점, 4점을 부여하여 4점 리커트척도화 하였다. 이 척도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82이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행태에 대한 양적인 자료 분석을 목적으로 한 1차 질문지조사와 질문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양적인 자료에 더해 보완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2차 심층면접조사의 두 단계로 실시되었다.

1차 질문지조사에서는 남녀기혼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별 및 직종을 고려하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첫 단계로 남녀비율과 여성소비자 중 취업과 비취업의 비율을 각각 반씩하고, 두번째 단계로 전업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남녀소비자 전체에 대해서는 '96년도 서울시 통계연감 및 한국통계연감의 직종별 인구비율에 근거하여 표집률을 결정하였으며, 세번째 단계로 기혼여성 중 전업주부의 경우는 소득수준을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

로 적절히 안배하여 연구목적에 합당하도록 의도적 표집을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질문지 응답 자료는 677부였다. 2차 심층면접조사의 연구대상으로는 1차 질문지조사에 응했던 조사대상자 중 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여성소비자 10명을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분석에서 이용된 표집의 조사대상자 및 심층면접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질문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의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

<표 2> 심층면접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면접대상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주거형태
1.	30세	대 졸	전업주부	아파트
2.	57세	대 졸	전업주부	아파트
3.	34세	대 졸	전업주부	아파트
4.	47세	대 졸	전업주부	아파트
5.	28세	대 졸	취업주부	아파트
6.	47세	고 졸	취업주부	단독주택
7.	43세	고 졸	전업주부	단독주택
8.	42세	고 졸	전업주부	아파트
9.	52세	고 졸	전업주부	단독주택
10.	32세	대 졸	취업주부	아파트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77)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99	(44.2)
	여자	378	(55.8)
	무응답	.	
연령	20대	103	(15.5)
	30대	300	(45.0)
	40대	184	(27.6)
	50대 이상	79	(11.9)
	무응답	11	
교육수준	중졸 이하	43	(6.4)
	고졸 이하	233	(34.5)
	전문대·대졸이하	327	(48.4)
	대학원 이상	73	(10.8)
	무응답	1	
직업	무직*	185	(27.3)
	전문직·관리직	135	(19.9)
	사무직	74	(10.9)
	판매·서비스직	150	(22.2)
	생산·단순기능직	127	(18.8)
	기타	6	(.9)
	무응답	.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153	(23.5)
	150~250만원미만	235	(36.0)
	250~350만원미만	171	(26.2)
	350~450만원미만	44	(6.7)
	450만원 이상	49	(7.2)
무응답	25		

*전업주부 포함

편차, 요인분석, 쌍체 t-검증을 이용하였고,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하위차원 구성

다양한 행동으로 구성되는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이 연구자가 의도한 두 개의 하위영역 -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외에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개인적인 이득이 지각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 으로 구분될 수 있을지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각 하위차원에 포함시키는 문항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척도의 12개 문항은 다음 <표 3>와 같은 두 하위차원으로 구분 가능하였다. 각 차원이 어떠한 특성에 의해 구분되어지는가를 검토하고, 여기에 보완하여 소비자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두 개로 구분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하위차원을 각

- 1)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의 목적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여러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두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항 10, 11, 12는 이론적 검토와 심층면접 자료를 토대로 요인 2로 포함시켰다.

〈표 3〉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요인분석

** p < .001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문항 (N=677)	요인 1	요인 2	척도와와의 상관관계
1.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59	.25	.684**
2. 프레온가스 함유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32	.21	.594**
3.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53	.30	.649**
4. 가능하다면 재생용품을 구입한다.	.43	.13	.569**
5. 불필요한 포장은 거절한다.	.40	.31	.604**
6. 캔이나 종이팩보다는 병제품을 구입한다.	.48	.18	.611**
Cronbach's α = .67			
7. 저공해 농산물이나 과일을 구입한다.	.20	.60	.692**
8. 리필제품을 구입한다.	.29	.32	.565**
9.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 구입을 피한다.	.21	.67	.711**
10. 환경오염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다.	.40	.45	.691**
11. 필요한 양만 구입해서 남겨버리지 않는다.	.39	.42	.645**
12. 천연섬유로 된 의류를 구입한다.	.38	.44	.680**
Cronbach's α = .75			
요인 1 : 고유치 4.09	설명력 34.1%	총설명력 42.7%	
요인 2 : 고유치 1.02	설명력 8.5%		

각 '사회지향적 차원(요인 1)' 과 '개인지향적 차원(요인 2)' 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사회지향적 차원은, 그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온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사회 전체의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행동이기 때문에, 혹은 외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개인지향적 차원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굳이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사회 전체의 환경오염피해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우려나 관심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이나 경제적 이익 같은 이유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행동의 경우는 보다 자발성이 큰 행동일 것이다.

사회지향적 차원과 개인지향적 차원으로 구분된 것은, 각 행동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차이가 행동으로 이어져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심층면접을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중 사회지향적 하위차원을 구성하는 행동의 경우는 사회 전체의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한 환경보존의 이익 역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행동을 하는 순간의 직접적인 이유로는 사회의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생각이 우선되었다²⁾.

반면, 두번째 하위영역인 개인지향적 차원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나 경제적 이득 등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편익을 생각하게

2) 심층면접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자제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게 있으면 편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안쓰게 되는건 개인적으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공공의식 때문에, 그야말로 환경을 위해서 그런 것을 아끼고 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요(일회용품 사용 자제)".

"살림을 하다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두 사람이 사는데도 플라스틱이며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보면 이게 다 어디로 가고 어디 묻힐건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쓰레기 배출 자제)".

<표 4>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의 전반적 경향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12문항, N=677)			사회지향적 차원 (6문항, N=677)			개인지향적 차원 (6문항, N=677)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구간	12~21	.	.	6~10	.	.	6~10	.	.
	22~30	.	.	11~15	32	(47)	11~15	9	(13)
	31~39	148	(21.9)	16~20	214	(31.6)	16~20	138	(20.4)
	40~48	529	(78.1)	21~24	431	(63.7)	21~24	530	(78.3)
평균(SD)	42.93 (4.16)			20.93 (2.69)			22.01 (2.19)		

<표 5>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전반적 경향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12문항, N=677)			사회지향적 차원 (6문항, N=677)			개인지향적 차원 (6문항, N=677)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점수	빈도	(%)
구간	12~21	24	(3.5)	6~10	47	(6.9)	6~10	13	(1.9)
	22~30	217	(32.1)	11~15	270	(39.9)	11~15	181	(26.7)
	31~39	302	(44.6)	16~20	306	(45.2)	16~20	322	(47.6)
	40~48	134	(19.8)	21~24	54	(8.0)	21~24	161	(23.8)
평균(SD)	33.40 (6.41)			15.69 (3.48)			17.72 (3.62)		

된다는 것이 행동의 주된 이유였다³⁾. 이런 행동에 있어서도 사회 전체의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완전히 배제된 채 단지 개인적인 편익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이었지만, 그런 행동을 통해 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더욱 좋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개인지향적 하위차원에 포함된 행동의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입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2.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및 소비행동의 전반적 경향

각 척도의 평균점수를 근거로 환경친화적 소비태

도 및 소비행동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의 평균점수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졌던 바와 같이 태도에 비해 실제 행동면에서 덜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점수분포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경향을 비교해 보아도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행동에 비해 태도에서의 상향 편포 경향이 매우 두드러진다.

3) “먹는 것은 직접적으로 몸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을 오염시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먹는 것에서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저공해 농산물이나 과일 구입)”
“난 대부분 리필제품을 쓰거든요. 그런데 리필을 쓰는데는 환경을 생각하는 요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써요(리필제품 구입)”.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친화적 소비태도는 전반적으로 많이 성숙되어 있는데 비해 행동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실천력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의 전반적 경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태도와 행동 각각의 하위차원별 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의 경우 사회지향적 차원의 평균점수는 20.93점인 반면 개인지향적 차원의 점수는 22.01점으로 개인지향적 차원의 점수가 더 높았다.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역시 각각 15.69점과 19.72점으로 개인지향적 차원의 점수가 사회지향적 차원의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지향적 차원에 비해 개인지향적 차원의 행동이 소비자들에 의해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비용편익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소비자들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나 혜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직접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 환경친화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동기로서 사회적인 고려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불일치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해서, 각 응답자별 소비태도와 소비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수치화한 불일치 점수의 계산을 통해 불일치 정도를 분석하였다(〈표 6〉 참조).

전체적인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소비행동 불일치 점수의 평균은 9.53점으로, 태도에 비해 행동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점수 분포에서도 불일치의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태도에 비해 행동수준이 높은 경우는 3.5%에 불과했고, 약 95%에 달하는 응답자가 태도에 비해 행동 수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하위차원별로 구분해서 사회지향적 차원과 개인지향적 차원에서의 태도-행동 불일치 점수의 차이를 쌍체 t-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두 하위차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향적 차원에서의 불일치 점수의 평균은 5.24점, 개인지향적 차원에서의 불일치 점수의 평균은 4.29점으로, 사회지향적 차원에서 태도-행동간 불일치가 더 크며, 태도에 비해 행동수준이 낮은 형태의 불일치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사회지향적 차원에서는 태도보다 행동수준이 높은 경우는 4.7%, 태도에 비해 행동수준이 낮은 경우가 90.8%인데 비해, 개인지향적 차원에서는 태도보다 행동수준이 높은 경우는 5.3%, 행동보다 태도수준이 높은 경우는 85.5%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사회지향적 차원에서의 불일치가 더 큰 것은, 사회지향적 차원에 속하는 행동의 경우에 환

〈표 6〉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소비행동 불일치의 전반적 경향

***p<.001

		불일치 점수 = 소비태도 - 소비행동 (N=677)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소비행동 불일치		사회지향적 차원의 태도-행동 불일치		개인지향적 차원의 태도-행동 불일치	
	빈도	(%)	빈도	(%)	빈도	(%)	
태도 > 행동	642	(94.8)	615	(90.8)	579	(85.5)	
태도 = 행동	11	(1.6)	30	(4.4)	62	(9.2)	
태도 < 행동	24	(3.5)	32	(4.7)	36	(5.3)	
평균 (SD)	9.53(6.10)		5.24(3.67)		4.29(3.38)		
t 값	t = 6.96***						

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친화적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는 의식이나 태도와 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것은 개인지향적 행동의 경우 그 동기가 좀더 자발적인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행동으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즉, 행동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금전적 이득 등과 직접 관련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 정도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지향적 행동의 경우는 사회 전체의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중요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데 따르는 이익과 비용을 감안할 때 자신에게 직접 돌아오는 사적 이익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당위로서의 의식과 현재로서의 행동간의 괴리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4.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소비행동 불일치의 원인

소비자 스스로 태도와 행동간의 괴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불일치가 지속되는 원인을 심층면접 속에서 찾아본 결과,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원인과 행동을 실행하는 상황제약적인 측면에서의 원인으로 요약되었다.

1) 의식적 측면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소비행동 불일치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식적인 측면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첫째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통하여 생겨나는 공공 이익에 대한 인식, 즉 일종의 사회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혹은 '당위'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⁴⁾.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 - 예를 들면 편리함 같은 - 에 직면하면 태도와는 달리 행동에 있어서는 적극성이 감소된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따르는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을 크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수행을 방해하는 또다른 요인은 '나 혼자 애써봐야 환경문제가 더 나아져서 내게 돌아오는게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었⁵⁾. 이런 생각은 특히 사회지향적 차원에 속하는 행동의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개인지향적 행동에 비해 사회지향적 행동의 경우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괴리가 더 크게 지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문제의 공공재적 특성이 소비자의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의식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공공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한다.

2) 상황제약적 측면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를 야기

- 4) "환경오염의 결과가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생활에 안 다가오잖아요. 당장 강이 오염됐다고 그러지만 수도물 먹고서 막 복통을 일으킨다거나 그러지는 않으니 까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는 관념적으로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당장 그것때문에 어떻게 내가 생활상의 불편을 겪거나 그런일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요..."
- 5) "환경문제는 정말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변화가 있는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가 요즘에 주말만 되면 오존주의보 발령 나거든요, 그러면 되게 무서워요. 마이크로 오존주의보가 12시 현재 발령됐습니다. 막 이러면서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시고 그러면, 에어컨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다가도, 야 저거 듣고 에어컨 사용 안하는 사람은 나밖 에 없을텐데,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내가 하나 에어컨 잠깐 끈다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면, 행동이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에서의 문제로서 상황제약적 측면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찾아진다. 의식적 측면의 원인이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따르는 공공 이익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고 한다면, 상황제약적 측면의 원인은 개인의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비용편익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상황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면접대상자들에게서 밝혀진 것들로는 불편함, 경제적 비용, 정보 부족 등이 있었다. 면접에 응했던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등 특정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면⁶⁾,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⁷⁾,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다면⁸⁾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실천할 의사를 표시했다.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경제적 유인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은 매우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이에 따라 민감하게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면접에서도 이런 경향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절대 가격이 비싸다는 것, 혹은 동일한 가격이라고 할 경우 품질과 대비한 상대적 가격이 일반 제품에 비해 더 비싸게 느껴진다는 것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주저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더욱이 상당수 사람들이 재생용품의 가격은 당연히 더 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한 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것이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제약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은 얼마간의 자기 희생을 치러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비용상의 이익을 통해 환경친화적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비용편익 비교에 의해 편익이 충분히 크게 느껴진다면, 굳이 강제적 정책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참여가 생겨날 것이다. 즉, 환경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긴 하되, 그 개입은 불편함이나 금전적 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결론을 얻었다.

첫째, 환경문제에는 개인의 편리함이나 복지와 사회 전체의 이익간에 생겨나는 사회적 딜레마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발적 노력만으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특징이 소비자의 행태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은 사회지향적 행동과 개인지향적 행동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태도나 소비행동 모두 개인지향적 차원보다는 사회지향적 차원의 경우에 더 소극적이었고, 태도에 비해 행동수준이 낮은 정도 역시 사회지향적 차원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지향적 소비행동에 대해 더 적극적인 것은,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적 이익이 크게 지각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론적인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였다.

6) "분리수거나 이런거 하면서 항상 시간이 좀 아깝고 귀찮아요. 리필제품의 경우도 별로 안 불편하기 때문에 써요. 리필을 샀다고 해서 쓰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리필은 안 살거예요. 나는 불편한 것은 정말 싫거든요."

7) "값이 똑같을 경우는 재생휴지말고 일반휴지를 쓰지요. 우선 보기에 좋으니까. 보기에 좋고 깨끗하니까. 재생하면 어딘가 모르게 좀 그런 기분이 들지요... 그렇지만 나한테 직접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사겠지요. 좀 값이 내려간단든가, 질이 조금 더 좋아진단든가. 예를 들어서 길이라도 10미터 더 준다든가, 뭐라도 요만치 달라지면 그러면 한번 써볼만도 하겠지요."

8) "재활용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나는 플라스틱은 다 되는줄 알았어요. 근데 애플 장남감 경우, 두꺼운거 뭐 있어요. 나는 그날 저기서 보고 놀란게, 아저씨들이 이거는 재활용이 안돼요 그러면서 버리더라고요."

셋째,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 불일치의 원인은 크게 의식적인 측면과 상황제약적인 측면의 두 범주로 구분되었다. 우선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불일치 원인은 대체로 두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의한 공공이익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다. 또다른 불일치 원인인 상황제약적 측면의 문제는 불편함, 경제적 비용, 정보 부족 등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식적 측면의 해결을 위한 교육 방안과 상황제약적 측면의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환경교육을 통해 의식의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행동면에서도 분리수거에의 참여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그러한 행동은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소비자들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윤리적 차원에서의 호소만으로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환경의식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여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소비자들은 사적 비용이나 이익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다가올 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환경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당위성이 자신 나름의 비용이 이익 분석과 크게 상치되지 않을 경우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개인적인 것과 상치될 경우는 달라진다. 따라서 환경피해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용과 환경친화적 행동의 장기적 결과로서 돌아오는 이익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시화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의식이 있고 행동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스스로 탐색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정책을 위한 제언

소비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규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교육과 더불어 환경정책이 필요하며, 정책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하여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사회지향적 소비행동과 개인지향적 소비행동 각각에 대해 정책의 주안점이 다르게 두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지향적 행동의 경우는 일정 수준의 실천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강력한 홍보나 규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행동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직접적인 이익으로 여겨지지 않거나 비용으로 느껴지는 등 제약요인이 커지면 행동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제반 여건 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반면 개인지향적 행동의 경우는 강력하게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보다는 그 행동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적 이익이 지각되는 행동에서는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강력한 규제를 하는 정책이 크게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둘째,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특히 사회지향적 행동에 대해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의 실천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에는 틀림없지만, 전체 과정 중의 한 부분을 소비자

가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비자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다음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예를 들어, 재활용품의 재생과 재생용품이나 환경친화적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경우 지속되기 어렵다. 정부가 분리수거된 제품의 재활용에 적극 나서서, 재활용 업체의 운영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행동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 방향과 구조 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비자주권적 행동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소비태도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큰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병완(1994),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나남.
- 2) 김영희(1995),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민현선·이기춘(1996),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과 환경규제방안에 대한 지지도," *대안가정학회지*, 34(3), 107-121.
- 4) 박운아(1997), 기혼여성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_____·이기춘(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3(4), 1-14.
- 6) 서정희(1986),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안향아(1994), 주부의 환경문제 인지정도가 환경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양창삼(1994), "환경문제에 대한 생태주의적 접근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15(2), 121-149.
- 9) 이시재·김종해·정영금(1995), "쓰레기 배출과 자원회수에 대한 부천시민의 행동과 의식의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연구*, 7(1), 135-165.
- 10) 이정전(1994), *녹색경제학*, 서울:한길사.
- 11) 전병재(1990), *사회심리학*, 서울:경문사.
- 12) 최병선(1993), "환경과 정책", *시민환경연구소 편, 환경의 의해*, 서울: 환경운동연합 출판부.
- 13) 현금희(1990),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일치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황인창(1990), 생태적 마케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환경의식적 소비자의 특성분 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Anderson, W.T. & Cunningham, W.H.(1972), "The socially conscious consumer," *Journal of Marketing*, 36, 23-28.
- 16) Antil, J.H.(1984),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Profile and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Journal of Macromarketing, Fall*, 18-36.
- 17) Baldassare, M. & Katz, C.(1992), "The personal threat of environmental problem as predictor of environmental practices," *Environment and Behavior*, 24(5), 602-616.
- 18) Corral-Verdugo, V.(1996), "A structural model of reuse and recycling in Mexico," *Environment and Behavior*, 28(5), 665-696.
- 19) Dunlap, R.E.(1991), "Public opinion in the 1980s: Clear consensus, ambiguous commitment," *Environment*, 33, 10-37.
- 20) _____ & Van Liere, K.D.(1978),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A proposed instrument and preliminary results,"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9, 10-19.
- 21) Fazio, R.H.(1990), "Multiple process by which attitudes guide behavior: The MODE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3, 75-109.

- 22) _____ & Zanna, M.P.(1978), "Attitudinal qualities relating to the strength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398-407.
- 23) Guagnano, G.A., Stern, P.C. & Dietz, T.(1995), "Influences on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s - A natural experiment with curbside recycling-," *Environment and Behavior*, 27(5), 699-718.
- 24) Hallin, P.O.(1995), "Environmental concern and environmental behavior in Foley, A small town in Minnesota," *Environment and Behavior*, 27(4), 558-578.
- 25) Henion, K.E.(1972), "Concern about toxic wastes: Three demographic predicto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9, 10-14.
- 26) Herberlein, T.A. & Black, J.S.(1976), "Attitudinal specificity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in a field set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474-479.
- 27) Hopper, J.R. & Nielsen, J.M.(1991), "Recycling as altruistic behavior: Normative and behavioral strategies to expand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recycling program," *Environment and Behavior*, 23(2), 195-220.
- 28) Karp, D.G.(1996), "Values and their effect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28(1), 111-133.
- 29) Kassarjian, H.H.(1971), "Incorporating ecology into marketing strategy: The case of air pollution," *Journal of marketing*, 35, 61-65.
- 30) Krause, D.(1993),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 empirical study," *Environment and Behavior*, 25(1), 126-142.
- 31) Lytle, J.R. & Chamberlain, V.M.(1985), "Adolescent energy conservation : Dimensions of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1), 132-142.
- 32) Maloney, M.P. & Braucht, G.H.(1975), "A revised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ecological attitudes and knowledge," *American Psychologist*, 30, 787-790.
- 33) _____ & Ward, M.P.(1973), "Ecology: Let's hear from the people: an objective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ecological attitude and knowledge," *American Psychologist*, 28, 583-586.
- 34) McCarty, J.A. & Shrum, L.J.(1994), "The recycling of solid wastes: Personal values, value orientations, and attitudes about recycling as antecedents of recycling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0, 53-62.
- 35) Ostman, R.E. & Parker, J.L.(1987), "Impact of education, age, newspapers and TV on environmental knowledge, concerns, and behaviors,"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9, 3-9.
- 36) Pelletier, L.G., Legault, L.R., & Tuson, K.M. (1996), "The environmental satisfaction scale: A measure of satisfaction with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government environmental practices," *Environment and Behavior*, 28(1), 5-26.
- 37) Roberts, M.L. & Wortzei, L.W.(1979), "New life determinants of women's food shopping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43, 28-39.
- 38) Samdahl, D.M. & Robertson, R.(1989), "Social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 concern: Specification and test of the model," *Environment and Behavior*, 21, 57-81.
- 39) Schwepkar, C.H. & Cornwell, T.B.(1991), "An examination of 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s and their intention to purchase ecologically packaged products,"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Marketing*, 10(2), 77-101.
- 40) Scott, D. & Willits, F.K.(1994),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 - A Pennsylvania survey-," *Environment and Behavior*, 26(2), 239-260.
- 41) Taylor, S. & Todd, P.(1995), "An integrated model of waste management behavior - A test of household recycling and composting intentions,"

- Environment and Behavior*, 27(5), 603-630.
- 42) Usitalo, L.(1987). Environmental impacts of consumption pattern, New York: St. Martins Press.
- 43) Van Liere, K.D. & Dunlap, R.E.(1980), "The social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 *Public Opinion Quarterly*, 44, 181-197.
- 44) Vining, J. & Ebreo, A.(1990), "What makes a recycler?: A comparison of recyclers and non-recyclers," *Environment and Behavior*, 22, 55-73.